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합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지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290호  
서기 2000년 10월 18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바람처럼 늘 놓고 사는게 우리 인생

### 집안에 벌레가 많습니다

**문** 저는 아이가 돌인 아기 엄마입니다. 집이 아파트인데 개미들과 작은 벌레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그 벌레들을 많이 없애게 됩니다. 나의 근본과 돌 아닌 주인공 자리에서 나온 생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이게 될 때마다 무척 언짢고 갈등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렇다고 마냥 방치만 해둘 수도 없습니다. 벌레가 귀에 들어가 응급실 가기도 하고 음식에도 들어가고 물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혜롭고 정정당당한 해결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답** 부처님 가르침은 참으로 묘법입니다. 단번에 죄업과 인과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찌다가 새나 벌레를 죽이게 됐다고 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을 근본으로 돌려서 그 생명과 우리가 곧 바로 하나가 된다면 죽은 생명은 참나에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얼른 잘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어떤 악한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한생각만 잘 내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한 나머지 윤리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강조하거나 문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라는 이치를 뼈저리게 믿는 마음이 먼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 생명을 주인공 자리에 되돌려 맡겼을 때 그 살생은 이미 살생이 아닌 것이요, 오히려 제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도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죄도 본래는 공한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한다면 또 과보가 따르기 마련인 것이 유험법(有爲法)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며, 선한 행위에는 선한 보답을, 악한 행위에는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험법을 떠나 저 무한하고 광대한 불발의 진수(眞髓)에 들게 될 때엔 이미 그런 인과응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몸심은 데서 몸 나고 팔심은 데서 팔이 난다는 말도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오히려 그 단계에서는 몸심은 데서 몸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몸심은 데서 팔이 날 수도 있습니다.

### 염불만이 생사해탈 되는지요

**문** 염불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참선을 잘하여 조사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생사를 벗어나기란 어렵고, 실제 역사상 유명한 선사도 윤회하고 있다고 하시며 미타염불이야말로 열이면 열, 번뇌를 끊지 못해도 왕생할 수 있으니 이야말로 지름길 중 지름길이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참선은 잘해도 열에 아홉은 미끄러진다 하시며 화두 놓고 열심히 염불하라고 주장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세속에 떠돌리며 사는 속인들에게는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생사해탈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수행의 문은 많이 있습니다. 염불을 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경을 읽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선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문 저 문 여러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벗어나면 서로 다른 문이 아닌

다. 그래서 문 없는 문이라고 했죠. 즉 마음 자체는 내놓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빚갈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질문을 하지만 주인공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며 이끌고 다니는 참자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불이 공해서 돌아가니 주인공이요, 고정됨이 하나도 없이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붙잡을 것이 없으면서 여전히 말을 하게 하고, 이 생각 저 생각나게 하고, 이것저것 보게 하고, 이것저것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입증 안 됩니까?

그리고 염불이 밖으로, 소리만으로 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꼭 바깥으로 붙잡고들 염불을 한단 말이예요. 그것도 옳은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를 붙들고 해야 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쉽게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믿으니까 바깥에다 해 놓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 시대에야 반듯이 안으로 붙잡고 나가게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모두들 의식들이 아주 성숙했잖아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절에 스님들이 많이 살았는데, 너는 누구 덕으로 사느냐 하고 물었더니 전부들 부처님 덕으로 산다고 하고, 때로는 은사님 덕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제 덕으로 먹고 삼나 이라대요. 그걸 스님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과섭하게 생각해서 불 때는 부목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좌는 그걸 마다 하지 않고 장작패어 불때고 부지런히 일하고 살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겁니다. 거기 주지 스님 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찌다가 벌이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보니까 유리문이 나가는 데인 줄 알고 나가려다 부딪치는 걸 보고는 '몸 떨어지니까 입도 떨어지더라'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나가는 문이, 경(經)이 문인 줄 알고 그거만 읽으니까

## 언짢아도 좋아도 찰나... 집착말라 들로 보지 않고 놓을때 번뇌녹아

늘어서 몸 떨어지고 보니 다 없어져 중노릇한 본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경이 유리문이구나, 하고 알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제자에게 주지 자리를 주고 자기가 부목이 됐다는 겁니다. 앉았지만 해서 유리를 튕는 게 아니고 부목 노릇만 해서 유리를 못 튕는 게 아니니까 제자를 주지 자리에 앉히고 나중에 자기는 선사가 됐다고 하죠.

알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간편한 법인지 모릅니다. 팔만사천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고, 온갖 번뇌와 고통이 거기에서는 태양 앞의 그림자처럼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위대한 광명이 바로 나 자신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번뇌를 끊어라, 버려라 하는 말을 녹이라는 말로 바꾸기도 합니다. 끊으라는 말은들로 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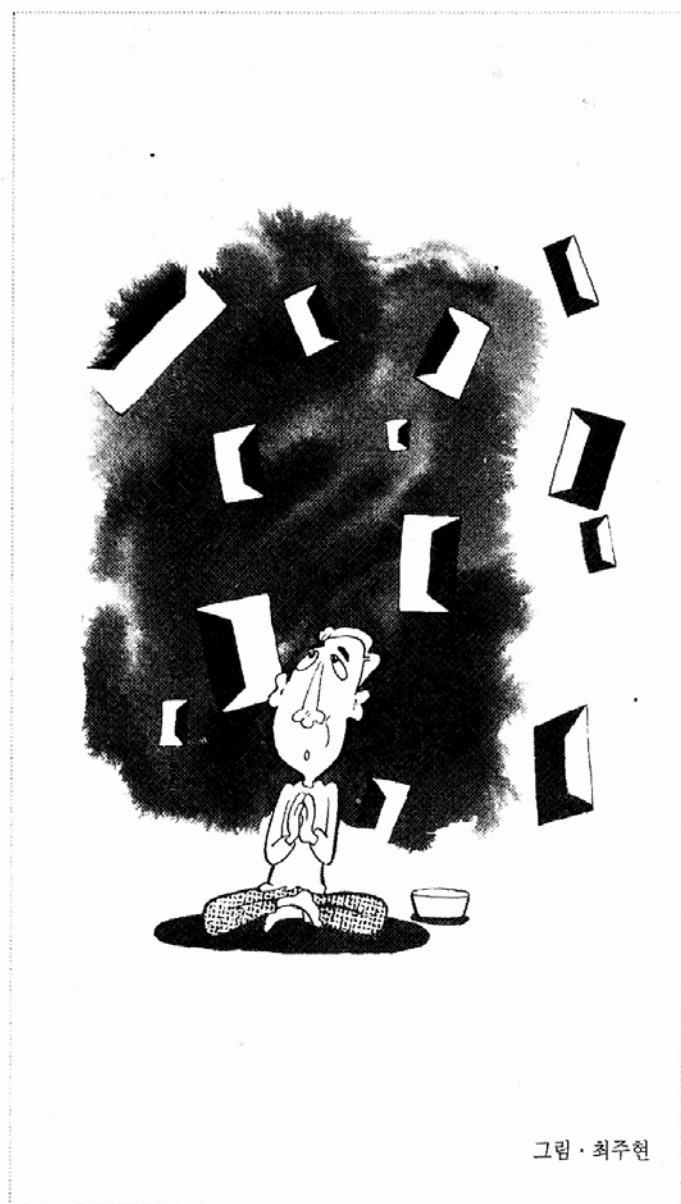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에 나옵니다. 그렇게들로 보는 이상 그것은 끝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나의 근본에 들고 나가는 것만 들어보니까 이 경이 유리문이구나, 하고 알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제자에게 주지 자리를 주고 자기가 부목이 됐다는 겁니다. 앉았지만 해서 유리를 튕는 게 아니고 부목 노릇만 해서 유리를 못 튕는 게 아니니까 제자를 주지 자리에 앉히고 나중에 자기는 선사가 됐다고 하죠.

### 경계가 녹여지지 않아요

**문** 어리석은 중생으로서의 희미한 삶은 너무나 힘이 들고 아팠습니다. 한마음 주인공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나왔음을 알고 그 자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찾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찮게 보았던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도 풀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큰스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든 나날도 내 탓으로 돌리며 애쓰는 중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경계, 상대, 내 속의 소리로 돌아보지 않고, 거짓이라 생각하고 속지 않으려 애쓰며 돌려놓지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의식들은 주인공

각을 한 겁니다. '아, 꽃은 인연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모두 보이게끔 하는 건데, 너의 몸이 그렇게 시들시들하고 그렇게 구부러져서 되겠니? 네가 꽃도 피우고 몸도 아주 곧고, 이쁘고 정다운 게, 또 아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런 인연을 가져야 너도 좋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버렸는데 그 꽃이 삼일만에 딱 썩어요.

꽃들도 이렇게 알아듣는데, 하다 못해 사람으로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못 알아주고 진실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자면 받아줄 수 없으니 소리죠. 수선년을 이렇게 일러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모습이 살고 있지만

## 죄가 본래 공해 실체가 없으니 유위법을 떠난 불법정수에 들면 인과응보 벗어나 자유인이 되죠

모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불성이라는, 주인공이라는 에너지, 에너지통이 있어요. 그 에너지통이 자기 생명력이에요. 그것을 정신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형성시킨 과거의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고 관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맡입니다.

### 참스승 알아볼 수 있으려면

**문** 저는 이 도의 길을 나아감에 있어 스승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자신이 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다운 스승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답** 어떤 이들을 보면 '누구를 믿어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말과 행과 뜻이, 이 세 가지가 완벽하다면 '따르라'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믿는 건 바로 자기 주인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차는 차의 운전수를 믿어야 되듯이 말입니다. 배를 타게 되면 선장을 믿어야죠. 자기가 아무리 과학자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서 배를 탈 때는 선장이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양 있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위대하다' 해서는 안되죠. 더불어 같이 사는 거니까 말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배를 타면 그저 선장의 말을 들어야 하고 또 농사 짓는 데 가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 겸허하게 숙어야 하는 거죠.

이 마음 공부야 필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계성에 자기의 정신을 뱉어도 아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 시대에는 육을 잡아먹고 육을 잡혀먹고 했지만 이런 첨단 시대에는 정신을 뱉고 정신을 뱉어 먹고 삼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깨우치면 모든 걸 벗어버리고 편안하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파서 우는 사람을 보면 같이 울게 되고 즐거워서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즐거워서 웃게 되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편

안한 것도 없고 편안치 않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같이 그 속에서 그냥 구르고 있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나 스승이라고 해서 조금도 다르다고 생각 말고 높다고도 생각 말고 '저분은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도 생각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같이 공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꽃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를 끌고 다닙니다. 다른 데를 믿지 마십시오. 제대로, 모습을 보고 믿지 마시고 그저 이끌어주면 이끌어주는 대로 말과 뜻과 행, 이 세 가지가 한결 같을가 보시고 그 가르침을 따르면 됩니다.

### 기도는 정말 의미가 없는지요

**문** 기도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획대로 기도를 마치지 못하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어찌서 타

력신앙으로 보아야만 하는 건가 싶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고 남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므로 겉모습은 타력이지만 속내용은 역시 자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답** 기도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불보살님을 바깥으로 찾으며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자신이 참회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건 참다운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덕이 하나도 없고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도리는 참나를 발견해서 깨달아 풀이 아닌 도리를 알고, 자유재권을 얻어서 나누는 방법까지 체득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다고 바깥으로 끄달리면 아니 되겠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보면 때때로 아버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형이 되고, 또 때때로 따서는 사위가 되고 그러는데,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관세음이라 하고,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아미타라고 하겠습니까? 나 하나가 필요에 따라 사위가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터득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찌 터득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제 정신세계를 간파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까?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분이 이와 같이 묻더군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구요. 그래서 "당신이 귀신 노릇을 한다면 귀신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귀신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귀신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죠. 사람이 귀신 짓을 하니까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형상만 보고 복을 빌고, 예수님 고행상만 걸어놓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기복일 뿐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상과 내 형상이 들

20면으로 계속

가짜된 안목을 넘듯 고요한 현실에 함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디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름

